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월간자산운용보고서

마이다스액티브주식형투자회사

2008년 11월

Fund Facts

투자 목적 :

적극적인 종목선택과 자산배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종합주가지수를 앞서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운용개시일 : 2001.03.06
펀 드 규 모 : 215억원
총 보 수 : A1-1%선취+연1.74% / C1-연2.78%
환매수수료 : A1-30일미만,이익금의70%/30~90일,이익금의30%
C1-90일미만,이익금의70%

펀드매니저 리포트

지난 11월 한 달간 수익률은 -3.59%였으며 동기간 종합주가지수는 3.32% 하락하였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대비 수익률이 저조했던 이유는 펀드내 편입 비중이 높았던 전기전자, 서비스, 화학, 운수장비등의 업종의 수익률 부진과 상대 수익률이 양호했던 유틸리티, 통신 등 업종의 투자 비중축소를 들수 있습니다.

주식 시황

지난달 주식시장도 거시경제 지표의 부진과 각국 정부의 즉각적인 정책대응으로 급등락을 반복하였습니다. 전세계적인 금융불안이 실물경기로 전이되면서 기업실적전망이 불투명해져,현재 주가수준이 예상기업실적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실적 전망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어 저가매수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 및 금리변수의 우호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외채상환과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자금 환전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환율상승은 원화약세로 인한 수출기업의 호재로서의 측면보다 수입기업의 대금 지불 및 외화부채에 대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재로서의 측면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한 달도 여전히 보수적인 포트폴리오가 우세한 시장상황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볼 때 음식료, 제약, 의료정밀, 유틸리티, 통신, 보험업종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인 반면, 철강, 화학, 건설, 운수창고, 운수장비, 기계, 종이목재 등 소재 및 산업재 업종과 은행, 증권, 서비스 업종 등이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자산배분

현재 펀드에서 현물주식은 90% 내외의 수준에서 조정하고 있으며 시장상황에 따라 지수선물 매수 또는 매도를 통해 실질 주식 편입비 기준으로 85-95% 범위내에서 자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종목선택

업종별 수익률은 음식료, 제약, 의료정밀, 유틸리티, 통신, 보험업종 등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견조하였고, 철강, 화학, 건설, 운수창고, 운수장비, 기계, 종이목재 등 소재 및 산업재 업종과 은행, 증권, 서비스 등 업종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 수익률은 LS, 남해화학, 동아제약, 동부화재, 두산인프라코어, 제일기획, LG텔레콤, 한국가스공사, 삼성화재, CJ제일제당 등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견조하였으며 하이닉스, 현대차, 한솔제지, 글로비스, LG, GS건설, 현대모비스, LG전자, 삼성SDI, 대한해운 등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 주요 변경 내용은 한국전력, KTF, 현대모비스, 대우증권 등을 신규편입하고 CJ, 외환은행, 녹십자, 동양기전 등을 제외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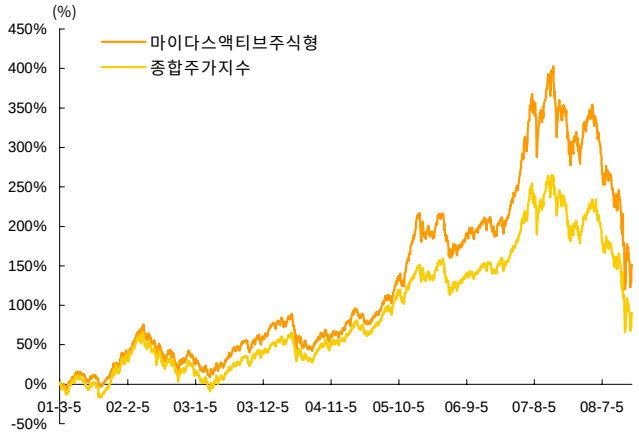
펀드운용실적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액티브주식형	-3.59%	-26.23%	-42.75%	-44.09%	151.68%
종합주가지수	-3.32%	-27.01%	-41.90%	-43.54%	90.33%
초과수익률	-0.27%	0.78%	-0.85%	-0.54%	61.35%

※펀드 기준가 및 수익률은 Class C1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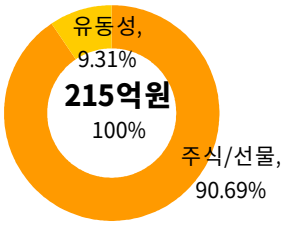
수익률 추이

(2001.03.05~2008.11.30)



* 과거의 실현수익률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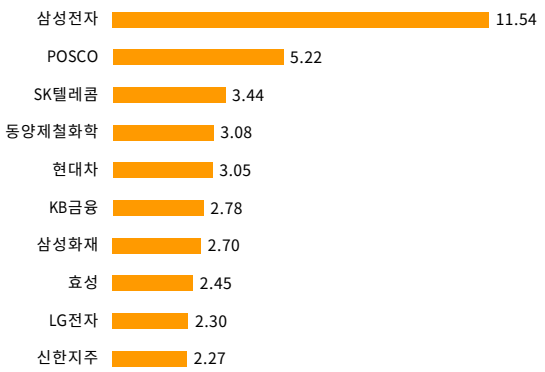
포트폴리오 현황



(현물주식편입비:92.65%,선물포함시 편입비:90.69%)

상위보유종목

(순자산총액 비중 38.85%)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판매회사와 판매회사의 어떤 관계회사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본자료에 사용된 정보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정확성과 완전함이 보장되진 않으며, 본 자료상의 운용계획은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운용 전략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현수익률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으며, 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투자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